익산시, 탄소중립 실현

숲·정원·친환경 자동차 확대… 쾌적한 환경 조성

익산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숲과 정원 등 녹색공간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정주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시는 도심 속 숲과 정원을 대폭 늘려 시민들에게 쉼과 여가가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 힐링도시를 조성한다.

우선 지난 2019년부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숲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계획 대비 114%를 달성한 168만9,000 그루를 식재한 상태이다. 폐선부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내 유휴부지 등 도심 속 빈 공간을 빠짐없이 숲으로 조성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이어 13억8,600만원을 투입해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실외정원을 만들고 함라산, 용화산 등 주요 산림지역과 공공승마장에 68h 규모의 편백·백합나무 등 총 11만그루를 식재한다.

금마저수지 일원 서동생태관광지에는 식물학습원,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등 체험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한 평 정원 가꾸기, 아가페 정원 등 도심 곳곳에 정원문화 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150억원을 투입해 전기·수소차 832대를 보급하고 업무용 관용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해 운용한다. 이어 8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자동차와 농기계 폐차를 지원해 매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우리동네 행복버스가 시민곁으로 찾아갑니다"

익산시, 주민과의 대화 순회

익산시 우리동네 행복버스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 곁으로 찾아간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선8기 익산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최초 3선 시장에 당선된 정헌율 시장이 다음달 출범하는 민선8기 시정 방향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과의 대화는 '시민들의 행복'을 모토화한 '동행버스(우리동네 행복버스)'를 타고 각 읍면동과 민생현장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통해 민선8기 미래비전과 읍면동 현황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익산시 우리동네 행복버스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 곁으로 찾아간다.

특히 각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익산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객을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주요 현안이 있는 마을 및 농업·민생현장을 관련 부서장과 함께 방문해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부서별 협업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군산시는 시민의 다양한 시정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한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 발굴부터 예산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총사업비는 10억 3천만원이다. 참여예산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

공모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이며 시정분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시민광장플랫폼)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로 접수하고, 지역분야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정분야는 △일자리 창출사업,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 기여사업을 지역분야는 △읍면동 지역현안 및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특색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단, 특정인·특정단체 이익사업, 단순민원성사업, 보조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사업을 사업부서에서 법령·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정분야는 온라인 투표와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되며, 지역분야는 읍면동의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최향이 지역을 소재로 한 트로트 곡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익산 愛(애), 봉숭아 꽃물'

익산 홍보대사 최향, 첫 싱글 앨범 15일 발매

익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최향이 지역을 소재로 한 트로트 곡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시는 15일 트로트 가수 최향의 데뷔 후 첫 싱글 앨범인 '익산 愛(애), 봉숭아 꽃물'이 정식 발매된다고 밝혔다.

익산 출신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인 가수 최향은 이번 앨범을 통해 신곡 '봉숭아 꽃물'과 수록곡 '익산 愛(애)'를 발표한다.

옛 첫사랑에 대한 곡인 '봉숭아 꽃물'은 뒷마당 장독대 옆 봉숭아가 달빛에 빨갛게 곱게 피면 가슴속에 묻어 놓았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한다는 대중적 가사 내용이다.

'익산 愛(애)'는 포근하고 따뜻한 우리네 어머니의 등 같은 고향을 표현한 가사가 특징이며, 최향의 부모님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는 익산을 배경으로 제작해 유독 애착을 느끼는 곡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시는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최향의 첫 앨범인 만큼 코로나19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하고, 더불어 익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홍보대사로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뜻깊은 첫 앨범에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곡을 발표해주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신곡과 함께 '익산 愛(애)'라는 곡이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져 앞으로 더 큰 사랑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향은 오디션 프로그램 'KBS 트롯 전국체전'과 '트롯매직유랑단' 등에 출연 경험이 있는 신인 트로트 가수로, 지난해 익산시 홍보대사에 위촉돼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영유아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총력'

익산시는 영유아 발달지연과 위기아동 조기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 10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위원과 유관기관(교육청,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연관 부서 공무원 등 총 2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들이 발달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초등학교 취학 후 학교생활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해 조기 발굴을 통한 방지를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영유아 발달지연과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해 어린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황지애 교수(유아교육과)는 회의에 참석해 영유아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에 대해 설명으로 조기개입 이해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유관기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토록 사전 조기개입으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이 예쁜 꿈을 가지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대비 준비상황 점검

군산시가 지난 10일 해수욕장 개장을 한 달여 앞두고 안전 및 운영사항 등 종합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선유도해수욕장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40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장한다.

이번 점검은 황철호 부시장 주재로 항만해양과 등 14개 관련부서가 참여했으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에 따라 피서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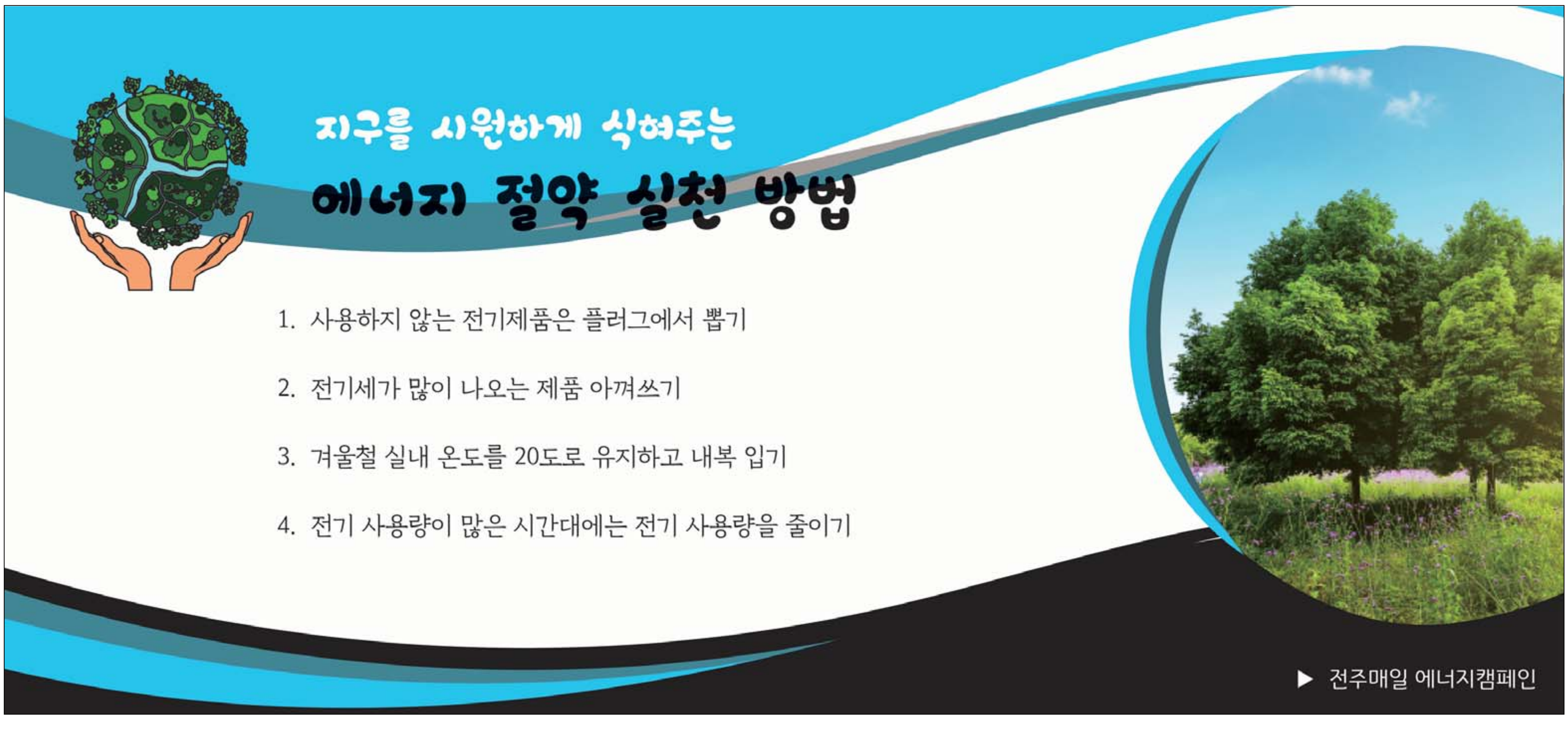
특히, 해수욕장 주변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사들에 대한 사업장 안전점검과 교통 등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장 전 필수 정비사항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군산시가 '2022년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참여자 11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야외수영장 등의 시설과 시청 및 주민센터 등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4주간 행정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6월 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이거나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던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대학교 재학생이다. 휴학생과 대학원생, 해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제외되며, 기존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군산시 청년뜰(군산상공회의소 4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